제가 만들고 싶은 서비스



마니또 와

아이들에게 조금 더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은

人 与 을 소개합니다





### 저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멘토였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을 교육봉사를 하면서 만났습니다. 공부에 힘들어 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아이들에게 제가 해주는 조언은 공부. 공부뿐이었습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좋은 멘토였을까?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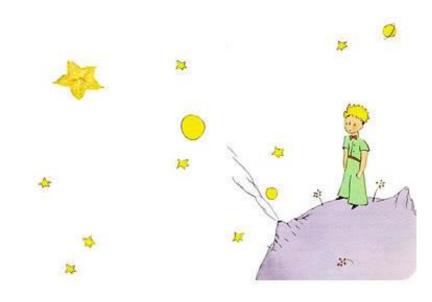
## "별들은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한 송이 꽃 때문에..."

-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 중에서



어린 왕자에게는 **장미꽃**이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혼자 있을 때 말동무가 되어주고, 사랑도 주었던 <mark>장미꽃</mark>이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그 <mark>장미꽃을</mark> 위해 화산을 청소하고, 바람막이를 씌워주었습니다.

지구에서 어린 왕자가 봤던 **별들은 모두 아름다웠습니다.** 그 많은 별들 중 하나가, **장미꽃이 있는 어린 왕자의 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공부도, 진로도, 돈도 아닌 별들을 아름답게 하는 장미꽃 한 송이와의 '관계'라 확신이 들었습니다. 성공이 더 큰 성공을 요구하고, 좋은 성적이 더 좋은 성적을 요구하는 모순적인 현대사회에서 아이들이 인간다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자신만의 장미꽃을 가꾸도록 돕는 어른**이 되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 지금 아이들에게는 '관계'가 없습니다.

10.28

고교 1학년 국영수 주당 평균 자습시간 (수업, 사교육시간제외)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종단연구 (2008~2011년)

중고생 10명 중 8명



가족과대화시간

여성가족부 '2012 청소년가치관조사



대화주제 <mark>공부, 성적 (29.14%)</mark> 진로 (15%)

여성가족부 '2012 청소년가치관조시

아이들의 공부 시간은 늘고, 대화 시간은 줄어만 갑니다. 그 나마의 대화시간에도 아이들의 이야기는 공부, 성적, 진로에 대한 이야기뿐입니다. 좀 더 가볍고, 좀 더 일상적이고, 좀 더 진부한,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마음 속 깊이 숨깁니다.

아이들이 말하는 법을 잊어갑니다. 그래서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 잊어갑니다.** 맘 놓고 이야기를 할 친구가 사라집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늘어갑니다. 5 / 31

아동청소년 자살률 순위

2/31

아동청소년 자살률 증가속도 순위

2013년 OECD 통계



그래서



또래 친구 커뮤니

# 마니또를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 마니또

### '비밀 친구'

제비 뽑기 등을 하여 지정된 친구의 수호천사가 되어주는 것

네이버 지식iN 국어사전

#### 〈마니또〉 에서는 이름을 절대 밝히지 않습니다.

하기 힘들었던 이야기를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 편히 할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한 어떤 선입견도 없는 친구들이 나를 격려하고, 조언하고, 응원하고, 위로합니다. 이름 모를 '마니또'들이 진심으로 나를 도와줍니다.

### 나는 마니또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마니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 못할 고민들에 대해 털어 놓고 '마니또'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힘을 얻은 나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친구의 '마니또'가 될 수도 있습니다.





## Inspired by



모두커뮤니케이션즈

청소년 진로진학 매거진 학생들의 꿈과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청소년 잡지



서울대학교 대나무숲

<u>페이스북 페이지</u>

익명으로 원하는 말을 대신 전해주고 관리자에 의해 게시글 및 댓글 필터링



어라운드

SNS 어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평점 만점의 솔직담백 이야기가 가득한 따뜻한 소통의 공간



또래 친구 커뮤니티

叶山生



카카오스토리

SNS 어플리케이션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뉴스피드 SNS

내 삶의 이야기를 맘놓고 터놓는 공간 '진짜' 관계를 맺는 공간

나와 비슷한 처지의 친구와 대화하는 공간





또래 친구 커뮤니티

### 마니또, 이런 서비스입니다

세 종류의 뉴스피드

카테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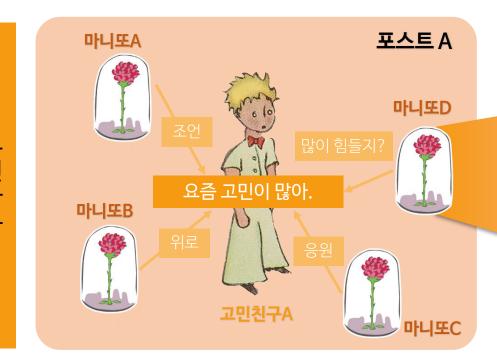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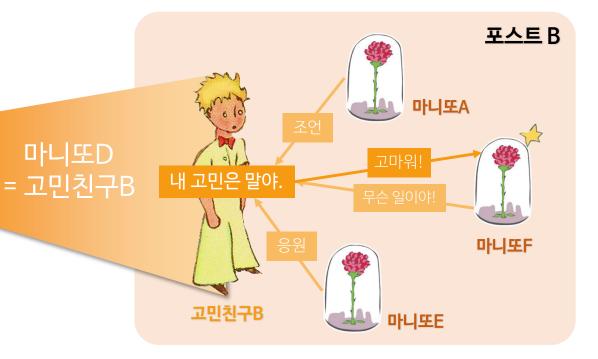


관심사공유

작거나 큰 일상 속 이야기를 마음 편히 나누는 공간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을 찾거나 사람들과 재미있는 것을 해볼 수 있는 공간

고민상담





저는 (**'멋쟁이 사자처럼'**을 통해

이렇게 바뀌고 싶습니다

# 머틀랩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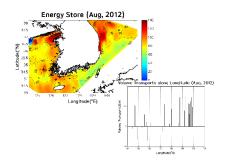
계산하고 과제하는데 지쳤습니다

#### 고등학교 시절 C++을 배웠습니다

숫자로 달팽이를 만들고, 별로 트리를 만들고 그랬습니다. 왜 만드는지 잘 몰랐습니다. 선생님은 알고리즘이 중요하다고만 그러셨습니다.

#### 대학에 와서 매틀랩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전공은 전공이고, 과제는 과제였습니다. 바다에 색칠하고 표 만들기에 넌더리가 났습니다.



#### 프로세스도 써봤습니디

드디어 제가 원하는 걸 만들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아트니 게임이니 하는 것들은 도무지 제 적성이 아니었습니다.



# 날위한공부

이제 코딩을 위해 코딩을 배우겠습니다

#### 코딩 그 자체를 배우고 싶습니다

한 번도 순전히 코딩을 목표로 공부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코딩으로 공부하고 과제하는 것이 아니라 코딩을 코딩으로 배워보고 싶습니다.

#### 코딩의 매력에 빠지고 싶습니다

코딩의 매력이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맞든, 맞지 않든 그냥 그 매력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 생각만해도 멋집니다

멋사를 통해서 코딩을 배우고 그것을 계기로 제 손으로 웹서비스를 꼭 오픈 해보겠습니다.



# 그저그런쌤

### PPT에 교과서만 가르치는 진부한 선생님

#### 솔직히 학창시절 수업은 들을만했습니다.

선생님이 책을 펴라면 책 펴고, 칠판을 보라면 칠판을 봤습니다. 열심히 줄을 긋고 필기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수업시간에 졸기도 하고 딴청도 피웠지만 저는 그냥 저냥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재미가 아니라, 내용을 전달해주는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 (재수없지만) 저는 공부가 그냥 좋았습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교과서로 하시든 PPT로 하시든 저에겐 별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저는 공부가 별로 싫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이 좋든 별로든 혼자 공부하면서 깨닫기도 하고 제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 앞서가는 쌤

이 세상 하나뿐인 자료로 가르치는 선생님



#### 선생님이 되려고 하니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저 같은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수업을 지루해하고, 선생님을 따분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옛날의 제 선생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PPT나 교과서로 수업했다가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신기하고, 재미있고, 새로운 자료를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교생실습을 하면서 멋진 시뮬레이션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달달 외워가며 공부했던 어려운 개념들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잘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제게 필요한 시뮬레이션을 만들면 정말 멋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멋사에서 공부하고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코딩에도 거침없이 뛰어들겠습니다.

# 그놈이그놈

새로운 사람을 만난 지 오래됐습니다.

#### 참 많은 사람에 둘러 살았습니다

새내기 시절은 학과 내에서 헌내기 시절은 환경동아리에서 그리고 3학년 때는 교육봉사동아리에서 많은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4학년이 된 지금. 새로운 사람은커녕, 사람 만날 일이 줄었습니다.

술은 안마셔도 코로 취한다며 술 마신 사람 행세를 하던 저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술자리에 나가는게 뜸해지고. 약속보다도 과제를 먼저 챙기게 되었습니다.



# 과네이미학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는 건 즐겁습니다



####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러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든 새롭게 도전하자는 원래대로 저의 모토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나와 누군가가 새로운 연결고리를 갖는다는 것 그 연결고리가 얼마나 소중한 지 다시 한 번 느끼고 싶습니다.

#### 얼마나 기상천외한 조합이 될까요

코딩을 공부하고 싶다는 것 외에는 공통점이 없을 사람들. 얼마나 다양한 전공.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게 될지 짐작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한 듯 합니다. 세상을 즐겁게 변화시킬 힘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

쿨하고 멋진 사자들과 감히 3개월을 함께해도 될까요?



어린왕자 같은 아이들에게
장미꽃 같은 마니또를 선물하기 위해
코딩을 코딩으로 배우기 위해
직접 만든 자료로 수업하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
쿨하고 멋진 사자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위해



